「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7

발의년월일 : 2006. 8. 3.
발 의 자 : 안채호 의원외 5인

1. 主 文

별첨 "결의문(안)"과 같음

2. 提案理由

○ 우리 사하구의회는 우리구 지역이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혼합화된 기형적인 도시기능을 이루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관내 일원의 환경저해 시설의 역외 이전 또는 악취관리구역 지정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야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조성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림동 산120번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은 이러한 우리구 의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사업추진시 전 구민적 저항에 부딪쳐 사회적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 질 것임.

○ 이에 38만 사하구민과 사하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문을 붙임과 같이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코자 함.

3. 보낼 곳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決　　議　　文

우리 사하구는 공단과 주거지역이 혼합화된 기형화된 도시기능을 이루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끝임없이 제기되어 주거생활은 최악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구 신평·장림·다대지역에는 동원아파트, 몰운대아파트 및 롯데캐슬 등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고 앞으로도 구평동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지역일원에 환경저해업종 등 주민기피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민원의 악순환으로 인한 주민반감으로 이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 올 것입니다.

일례로 다대쓰레기소각장과 신평지역의 특정폐기물소각장 그리고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인 강변사업소, 신평·장림공단의 염색단지와 피혁조합 등 6개 협업화 단지, 감천 복합화력발전소 등 생활환경 위해요소가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 구민의 생존권에 이미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생존권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평공단 지방산업단지 일원에 악취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피혁조합 등 공단지역의 환경위해업체 및 주민기피시설 역외이전 방안 등을 정부와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검토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또다시 주거지역과 인접한 장림동 산 120번지 상에 구민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단지 법규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향후 예견되는 모든 주민의 원성을 간과해 버린다면 이는 사하구민의 자긍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의 이기주의로 치부할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1년 6월 후면 3,460세대의 대단지 주민입주를 눈앞에 둔 인근지역에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사하구의회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주무관청인「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사업을 『불허가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37만 사하구민과 함께 이의 관철을 위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첨언하여 알려드립니다.

2006년 8월 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일동